

암묵연합검사에 반영된 성별 범주 표상의 성차*

이 재 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성별 범주의 암묵적 표상이 참가자 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두 개의 실험에서 관찰하였다. 실험 1에서는 성별 범주의 속성 선호도가 암묵적 표상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암묵연합검사를 적용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여자 참가자가 남자 참가자에 비해서 암묵연합검사의 점수가 크게 관찰되었다. 실험 2에서는 성별 범주의 속성 전형성도 암묵적 표상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역시 암묵연합검사를 적용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암묵연합검사의 점수에서 남녀 참가자의 차이가 없었다. 두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성별 범주는 성별 속성과 참가자 성이 역동적인 관계로 표상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사회 인지, 성별 범주, 성차, 암묵연합검사

[†] 교신저자 : 이재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E-mail : leejaeho@kmu.ac.kr

사람들은 기억에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범주(category)라는 정신적 구조로 표상되어 있다. 범주는 복잡한 정보들을 분류하는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기억에 저장되고 처리될 수 있게 한다(이재호와 이정모, 2000; Medin, Lynch, & Solomon, 2000; Murphy & Lassaline, 1997). 범주는 범주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있으며 그 구성원이 지니는 속성에 근거하여 상위 개념을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Murphy, 2002; Smith & Medin, 1981). 예를 들어, ‘사과’는 하나의 사물이지만 사과의 개념은 ‘사과’가 지니고 있는 속성 정보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사과는 같은 수준에서는 ‘포도’와 다른 범주에 속하지만 ‘과일’이라는 상위의 위계 수준에서는 같은 범주 내에서 표상된다. ‘사과-과일-불다’의 삼위일체적 표상이 사과가 의미적인 지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물에 대한 범주 표상의 이론은 사람에 대한 표상에도 적용되었다. 대표적인 범주로는 성별, 인종, 연령, 직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사회 범주로 불리우며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표상하여 준다(예, Devine, 1989; Fiske, 1998; Greenwald & Banaji, 1995; Kunda, 2000; McGarty, 1999).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을 접하게 되면 성별 범주는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파악하게 하며, 하위 범주에 대한 파악은 ‘아름다움’ 같은 세부 속성 정보가 활성화된다. 범주(예, 사람), 하위 범주(예, 여자), 그리고 속성(예, 아름다움)의 활성화는 사람에 대한 성별 지식을 구성하게 한다. 성별 지식의 활성화는 상당히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알려졌다(Greenwald, et al., 2002).

사람 같은 사회 정보의 처리는 사회 지식의

표상 내용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사람에 대한 ‘여자’와 ‘아름다움’의 활성화는 기억에 저장된 경험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여자’이면 ‘아름답다’라는 속성의 활성화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적 지식의 활성화이다. 또한 이들 지식에는 그 속성이 어떤 정보인지를 평가하는 지식도 있다. 즉 그 속성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사회 지식은 고정관념과 평가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Greenwald, et al., 2002).

지식은 기억에 저장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억의 표상된 자료이지만 사회 지식의 경우에는 특히 자신의 개념이나 정보 또한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Greenwald 등(2002)은 균형 정체성 모형(balanced identity design)을 제안하면서 사회 지식은 ‘자신-범주(집단)-속성’이 균형적으로 표상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이론적 모형은 전통적으로 주장되었던 사회 지식의 ‘범주-속성’의 일치적 표상을 포괄하여 자기 개념, 자존감, 집단 정체성, 고정관념, 태도 등의 사회 인지 구성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예, Greenwald, et al., 2002). 이 모형에 따르면 여자는 ‘나는 여자이고, 여자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나는 긍정적이다.’ 라는 표상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균형 정체성 모형에서 가정하는 정서와 인지와 구성개념인 태도(attitude)와 고정관념(stereotype)이 암묵적인 수준에서 어떤 표상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Greenwald, et al., 2002), 또한 그들 구성개념들이 성차(sex difference)의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Aidman & Carroll, 2003; Carpenter, 2000; Rudman & Goodwin, 2004). 사

회 지식의 연구에서 태도와 고정관념이 다른 체계로 개념화되었지만 일반정보처리에서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이 두 체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속성 정보를 정서적 속성(속성의 선호도)과 인지적 속성(속성의 전형성)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런 표상이 참가자 성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균형 정체성 모형에서 주장 하듯이 여자처럼 남자의 경우에도 ‘나는 남자이고, 남자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나는 긍정적이다.’ 라는 성별 대비적 표상을 구성하는지이다. 즉 여자처럼 남자도 동일한 표상을 구성하는가이다. 문제의 제기는 선행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근거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참가자 자신의 성(sex)이 사회 범주의 속성 차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증거들이 있었다(예, 이재호와 방희정, 2003;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 2001; 이재호, 방희정, 및 최상진, 2004). 그렇지만 이들 연구들은 점화 패러다임을 사용하였기에 과제의 일반화와 암묵적 표상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암묵연합검사를 적용하고자한 것이다.¹⁾

성별 범주의 자동적 처리와 암묵적 표상

Fazio, Sanbonmatsu, Powell, 및 Kardes(1986)는 태도의 자동적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속성 선호도(preference)를 조작하여 사물과 속성간의 점화효과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점화(예, 태도 사물)와 목표(예, 평가 속성)가 일치되는 조건(예,

‘담배’-‘나쁘다’)과 일치되지 않는 조건(예, ‘담배’-‘좋다’)의 점화효과(priming effect)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태도의 속성이 일치하는 조건이 불일치하는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증거를 얻었다(예, Bargh & Chartrand, 1999). 또한 그들은 태도 속성의 자동적 활성화 과정을 관찰하고자 점화 자극과 통제 자극의 SOA²⁾를 조작하였고, 그 결과, SOA가 300ms 이내인 짧은 조건에서는 태도의 일치성(congruency) 효과를 관찰하였고, 긴 조건인 SOA 1000ms 조건에서는 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더욱이 Bargh, Chaiken, Govender, 및 Pratto(1992)는 태도 속성의 연합강도를 조작하였을 경우에도 연합강도의 정도에 관계없이 점화효과의 일치성 효과를 얻었다.³⁾

Banaji와 Hardin(1996)은 성별 범주에도 자동적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 역시 SOA 300ms의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참가자에게 일반명사(예, ‘mother’)를 점화단어로 제시하고, 대명사(예, ‘he’, ‘she’)를 목표단어로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그 대명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성별 범주가 일치하는 조건(예, ‘mother’-‘she’)이 불일치하는 조건(예, ‘mother’-‘he’)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다. 이는 ‘mother’의 성별 속성이 ‘she’의 성별 속성에 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연구 역시 성별의 고정관념적 지식이

1) 암묵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는 범주할당 과제의 일종으로 암묵적 수준의 처리과정을 측정하는 과제이다(Greenwald et al., 1998).

2) SOA(stimulus onset asynchrony)는 점화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부터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의미한다(예, 이재호, 김성일, 1998).

3) 성(sex)과 성별(gender)의 용어 구분: 이 연구에서는 성은 참가자의 생물적 성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성별은 성에 대한 사회적 성의 표상으로 사용하였다(예, Fiske, 1998).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Fazio 등(1986)이나 Banaji와 Hardin(1996)의 연구는 각각 태도의 일치성과 성별의 고정관념의 일치성이 점화효과에 작용한다는 증거를 자동적 처리에 민감한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이들 결과는 사회 인지가 자동적이며 또한 암묵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런데 Fazio 등(1986)과 Bargh 등(1992)의 연구는 사물의 평가 과정을 살펴보았기에 사람의 평가 속성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Banaji와 Hardin(1996)의 연구는 실험 재료를 대명사가 아닌 성별 속성으로 변환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Klauer, Rossnagel, 및 Musch(1997)는 사물-속성 대신에 성격 속성을 사용하여 선호도의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SOA 0-100ms에서만 긍정-긍정 속성간의 점화효과가 나타났고, SOA 200-1200ms 사이에서는 점화조건들간의 차이가 없었다. 즉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재호 등(2000)은 성격의 속성 대신에 성별 속성을 사용하고 판단과제 대신에 명명과제(naming task)를 사용하여 일치성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SOA 150ms에서는 점화자극의 긍정성 효과만 관찰되었고, 그 이외의 SOA 250-1000ms에서는 조건간의 차이가 없었다. 두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 비해서 태도나 성별의 일치성 효과보다는 속성의 긍정성 효과를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성별 속성의 긍정성 효과는 성별 속성의 태도가 성별 범주로 표상되기 보다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적 차원이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며, 두 속성이 대칭적으로 표상되기보다는 긍정 속성이 부정 속성

에 비해서 속성간 응집성이 높게 표상됨을 시사하였다.

이재호 등(2001)은 성별의 범주적 표상에 대한 증거를 좀더 체계적으로 얻고자 하였다. 그들은 성별 태도의 속성을 사용하는 대신에 성별의 남성 속성과 여성 속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적 속성을 사용하였다. 먼저 짧은 SOA를 사용한 실험(SOA 250ms-500ms)에서 점화-목표 속성의 성별 일치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여성-여성’ 속성간 점화와 ‘여성-남성’ 속성간 점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일치성 효과가 작용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어야 한다. 그 결과, 점화단어가 여성인 경우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서 그리고 목표가 여성인 경우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여성-여성’ 조건(예, ‘화장하는’-‘가슴있는’)이 ‘남성-남성’ 조건(예, ‘군대가는’-‘수염있는’)이나 교차 조건(예, ‘화장하는’-‘군대가는’ 혹은 ‘수염있는’-‘가슴있는’)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SOA를 1000ms로 증가시킨 실험에서는 조건에 따른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성별 범주의 속성이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증거는 확보하였지만 평가적 일치성보다는 오히려 여성 속성의 우위 효과를 얻게 되었다.

성별 범주의 ‘범주-속성’ 혹은 ‘속성-속성’간의 일치성 효과는 여성과 남성의 하위 범주가 상위 범주에 대비적(contrastive)으로 표상된다는 가정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Banaji와 Greenwald(1995)는 일치성 효과가 성별 범주가 남녀의 하위 범주에 따라 균형적으로 표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여성 속성 간 점화가 남성 속성 간 점화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는 것과 긍정 속성이 부정 속성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된 것은 성별 범주가 사물 범주처럼 하위 범주들이 대비적이고 균형적으로 표상된다는 주장에 상반되는 결과이다(예, Klauer, Rossmagel, & Musch, 1997). 사회 인지의 이론가들이 사회 범주가 일반 범주(예, 대상이나 사물 범주)에 비해서 범주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과도 일치하며(예, Murphy & Lassaline, 1997), 여성 속성의 우위 효과는 남성 속성과 여성 속성의 의미적 응집성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예, Rudman & Goodwin, 2004).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성별 범주가 여성과 남성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면 각 하위 범주의 속성은 그 범주를 대표하는 속성과 평가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속성들이 혼합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미 Greenwald 등(2002)의 이론에서 제기되었듯이 성별 속성을 정서적 속성과 인지적 속성으로 세분화하여 그들의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성별 범주는 성에 대한 표상이기에 참가자의 성 또한 자신과 집단의 일치성 효과가 작용될 가능성이 있었다(예, Aidman & Carroll, 2003; Greenwald et al., 2002). 따라서 참가자의 성(sex) 변인도 실험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그들은 성별 범주(예, '영희' 혹은 '철수')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하고 목표자극으로 성별의 선호도와 전형성(typicality) 변인을 조작하여 성별 속성의 일치성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참가자 성(남자 혹은 여자)과 성별 범주(여성 혹은 남성)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여자는 여성 속성보다 남성 속성의 점화효과가 적게 관찰되었고, 반면에 남자는 두 속성 간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전형성 효과는 여자는 전형성의 점화효과가 있었

지만 남자는 전형성의 효과가 없었다. 셋째, 선호도 효과는 남녀 모두 관찰되었다.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이들 결과는 성별 범주의 표상에는 남녀 성별의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성과 남녀 성별의 평가적 속성인 선호도가 함께 작용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효과들이 전통적인 일치성 효과와는 양상이 달랐다. 우선 참가자 성이 성별 범주, 선호도, 전형성 변인의 표상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 범주의 표상에서 여자는 일치성 효과가 적용되지만 남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형성 효과도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관찰되었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수용한다면 성별 범주의 표상은 전통적으로 주장하였듯이 성별 범주가 남녀 하위 범주로 대비적 표상을 구성하기 보다는 다양한 제약들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표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예, Blair & Banaji, 1996; Fiske & Taylor, 1991). 특히 참가자의 성 변인이 추가되면서 사회 범주의 집단 정체성과 평가적 속성의 일치성에 자아 변인이 추가된 것이며 자아의 정체성, 집단의 전체성, 및 평가적 속성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한다(예, Greenwald et al., 2002).

사회 지식 표상의 성차

사회 인지의 일반적 현상의 하나는 내외집단의 구분에 있다. 즉 자신과 사회 범주의 정체성이 그것이다. Lorenzi-Cioldi, Eagly, 및 Stewart(1995)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자아 정체성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여자'이면 자신이 속한 성별 집단인 '여성'을 일치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외집단은 내집단에

비해서 동질적으로 지각하려는 외집단 동질성 효과(out-group homogeneity effect)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Vonk(2002)는 이러한 외집단의 동질성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내집단에 비해서 외집단을 범주화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이며, 다양한 유형의 예화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외집단은 고정관념에 불일치하면 재범주화하여 그들의 범주에서 제거하게 하며, 반면에 내집단은 고정관념에 불일치하더라도 같은 범주로 포함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Vonk(2002)는 이러한 범주화 과정의 차이는 내외집단에 대한 표상의 차이로 발전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내집단은 예화(exemplar) 표상을 구성하지만 외집단은 속성(attributes) 표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내집단은 개인별 표상을 구성하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추상적 원형으로 표상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대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면(Fiske, 1998; Greenwald & Banaji, 1995; Kunda, 2000) 이들 과정에도 성차가 작용하는지가 작용하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Ekehammar, Akrami, 및 Araya(2003)는 인종 편견의 표상에 성차가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스웨덴 남자의 얼굴과 이민자 남자의 얼굴을 점화하고, 애매한 이야기를 참가자에게 들려준 다음 인상형성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과제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편견이 강하지만 암묵적 과제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오히려 편견이 강하게 관찰되었다.

성별 범주에 대한 표상에도 성차가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Lorenzi- Cioldi, Eagly, 및 Stewart(1995)에 따르면, 남자는 성별 내집단보다 성별 외집단을 더 동질적으로 지각하며, 반면에 여자는 성별 내집단을 더 동질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단지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위 범주에 속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즉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외집단에 대해서 더 동질적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여자는 여성을 더 동질적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 문제

성별 범주는 남녀의 두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매우 단순한 위계 구조이며 그 표상도 남녀 하위 범주가 이분적으로 대비된다고 예측하였다(Banaji & Hardin, 1996; Greenwald & Banaji, 1995). 이러한 예측은 성별 일치성 효과(Banaji & Hardin, 1996)나 균형 정체성 모형(Greenwald, et al., 2002) 등에서 '범주-속성' 간의 일치성이나 '자신-집단-속성'의 인지적 균형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제호 등(2000; 2001; 2003)은 성별 범주의 일치성보다는 성별 범주의 여성 속성의 우위 효과와 긍정성 속성의 우위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들 현상은 그 자체로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이며, 성별 범주의 표상에 참가자의 성이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Banaji와 Hardin(1996)의 연구에서도 성별 일치성에 참가자 성 효과가 나타났다. 남자는 점화조건에 관계없이 'he'에 대한 점화효과가 'she'에 비해서 크게 나타났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에 균형 정체성 모형(Greenwald, et al., 2002)은 여자 참가자의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참가자의 효과에 대한 설명은 불가

능하였다(예, Aidman & Carroll, 2003; Carpenter, 2000; 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Carpenter(2000)나 Aidman과 Carroll(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자기 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훨씬 긍정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Rudman과 Goodwin(2004)은 이런 결과를 ‘여성의 자동적 내집단 편향’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내집단 편향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인가? Rudman, Greenwald, 및 McGhee(2001)는 여자 참가자가 ‘여성’-‘강함’을 남자 참가자만큼이나 암묵적으로 강한 연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 흔히 남녀는 남성-강함, 여성-약함의 연합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만큼이나 ‘강함’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여자의 자존감(self esteem)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는 여성이며, 나는 긍정적이며, 따라서 강함은 긍정적이라는 인지적 균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자존감이 강한 것인가? 여러 연구에서 여자와 남자의 자존감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예, 조혜자와 방희정, 2006; Aidman & Carroll, 2003).

과연 성별 범주의 표상에서 성차가 관찰될 것인가? 이 연구는 이재호 등(2001)의 점화과제의 패리다임을 또 다른 암묵적 과제인 암묵연합과제에 적용하여 그 결과가 반복 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점화과제는 점화 자극과 목표자극의 제시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절차를 사용한다. 반면에 암묵연합 검사에서는 범주명을 제시하고 각 범주명에 해당하는 이름이나 속성을 할당하게 한다. 점

화과제가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처리에 민감하듯이 암묵연합검사도 그러하다면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Aidman & Carroll, 2003; Carpenter, 2000; Ekehammar, Akrami, & Araya, 2003; Lorenzi-Cioldi, Eagly, & Stewart, 1995; Rudman & Goodwin, 2004). 또한 성별 범주는 자아나 집단의 속성의 선호도를 표상하는 정서적 구성과 자아나 집단의 개념을 표상하는 인지적 구성으로 구성된다(예, Greenwald, et al., 2002; Macrae & Bodenhausen, 2001).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는 성별 범주의 표상을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이분화하였고, 정서적 표상은 속성의 선호도를 조작하였으며 인지적 표상은 속성의 전형성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이 연구에도 적용하여 실험 1은 성별 범주의 속성 선호도의 성차를 살펴보고, 실험 2에서는 성별 범주의 속성 전형성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실험 1: 선호도 효과

실험 1은 범주의 속성 선호도가 참가자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Rudman 등(2001)은 암묵연합검사를 적용하여 여자나 남자 참가자 모두 ‘따뜻함’이나 ‘강함’의 암묵연합검사 점수가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따뜻함’은 여성 속성인 것이며, 강함은 남성 속성으로 알려진 것이다. 두 개념은 모두 긍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성별 범주의 태도는 범주의 성별(gender)이나 참가자의 성(sex)보다는 긍정 속성이 태도 표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재호 등(2001)은 점화과제를 적용하여 성별 범주(예, 미라)와 속성의 선호도 효과를 살펴보

았다. 속성이 긍정조건이 부정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그 효과는 성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점화효과 크기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여자 참가자가 남자 참가자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정서적인 태도에 민감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Aidman과 Carroll(2003)은 성별 선호도가 암묵연합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녀 참가자에 차별적으로 반응했다고 하였다(예, 남성/여성-기쁨/슬픔). 즉 여자는 성별 선호도의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남자는 성별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성별 태도에 참가자 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선호도 단어는 성별 범주의 속성이 아니라 일반 명사를 사용한 것이다. Banaji와 Hardin(1996)에 처럼 'mother-she'의 성별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성별 범주의 표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별 속성(예, '화장하는')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실험 1은 이재호 등(2001; 2003)의 연구에서 얻어진 성별 선호도의 점화효과와 성차가 암묵연합과제에서도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별 범주의 속성은 선호도에 따라 평정되었으며 성별 범주의 범주 명과의 연합 정도를 암묵연합과제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만약 선행 연구에서처럼 성별 범주와 속성의 선호도가 참가자 성에 따라 그 점화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면 암묵연합과제의 연합 강도에도 반영될 것을 예측하였다. 이는 성별 범주의 자동적 처리를 강조한 점화과제에 더하여 암묵적 처리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암묵연합과제에서 수렴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67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36명이었으며, 남학생은 31명이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참가자 성(여자, 남자), 성별 범주(여성 이름, 남성 이름), 속성 선호도(긍정 속성, 부정 속성)이었다. 이 중에서 참가자의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성별 범주와 속성 선호도는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실험 1은 2*(2*2) 혼합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⁴⁾

실험재료

실험 1의 실험재료는 이재호, 조근호, 오경기, 및 김미라 (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재료에서 선별하였다. 성별 범주의 성별 이름은 남녀 각각 10개씩 선별되었고, 속성 단어도 성별 속성의 선호도 평정에 따라서 긍정과

4) 실험설계는 독립변인이 세 변인인 혼합요인설계가 계획되었지만 실제 분석은 참가자 성에 따른 일원변량분석이 적용되었다. 암묵연합과제는 성별 범주의 반응시간은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속성 선호도도 성별 범주의 일치성에 따른 차이 점수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한다. 즉 여자는 (여성/부정+남성/긍정)-(여성/긍정+남성/부정)의 차이점수가 종속측정치이며 남자는 (여성/긍정+남성/부정)-(여성/부정+남성/긍정)의 차이점수가 종속측정치가 된다. 그리고 이 연구의 관심은 차이점수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지에 있다.

부정 각각 10개씩의 선호도 속성이 선별되었다. 실험 1에 사용된 성별 이름과 속성 단어는 모두 40개 이었다(부록 1 참조).

실험절차

실험 1의 암묵연합검사의 절차는 Greenwald, McGhee, 및 Schwartz(1998)의 절차를 적용하였다. 암묵연합검사는 일반적으로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성별 범주에 해당하는 성별 이름을 할당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성별 속성을 선호도 범주에 할당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에서 학습한 성별 이름과 성별 속성을 특정 범주에 할당하는 과정이다. 4단계는 2단계의 범주 위치를 바꾸어서 범주에 할당하는 단계이다. 5단계는 3단계처럼 성별 이름과 성별 속성을 특정 범주에 할당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3단계와 동일한 절차이지만 성별 이름과 속성 범주의 위치가 교차되는 차이가 있다.

실험이 시작되면 암묵연합검사에 대한 지시문이 제시된다. 그런 다음, 컴퓨터 화면의 상단에 성별 범주명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좌측 상단에는 ‘남성 이름’이 제시되며 우측 상단에는 ‘여성 이름’이 제시된다. 그리고 두 이름의 가운데 하단에 사각형의 창이 그려져 있다. 이 장면은 한 단계의 반응을 하는 동안에 고정되어 있다. 참가자는 준비가 되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고, 그러면 하단의 사각형 창에 특정 단어가 제시된다. 1단계에서는 사람 이름(예, ‘창수’)이 제시되는데, 참가자는 제시된 단어의 성별을 파악하여 반응을 하여야 한다. 즉 성별 이름이 여성 이름인지 남성 이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그 단어가 남성 이름이면 자판의 왼쪽에 있는 ‘z’를 누르고, 여성 이름이면 오른쪽의 ‘/’를 눌러야

한다. 참가자의 각 반응 후에는 반응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이 화면에 제시되었다. 이 단계의 과제는 사각창에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20개의 남녀 이름을 상단의 성별 범주에 정확하게 할당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성별 범주와 성별 이름의 연합적 관계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2단계의 과제는 1단계와 모든 절차는 동일하지만 상단의 범주와 재료에서 차이가 있다. 이 단계는 상단 좌우에 각각 ‘긍정 속성’과 ‘부정 속성’의 범주가 제시되며, 사각창에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20개의 단어를 파악하여 두 범주의 하나에 성별 속성(예, ‘아름다운’)을 할당하는 과제이다. 이 단계는 성별 범주와 속성 선호도의 연합적 관계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1, 2 단계를 거치면서 참가자는 성별 이름과 성별 속성이 어떤 범주에 할당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를 종합하는 단계이다. 즉 왼쪽 상단에는 ‘남성 이름 혹은 긍정 속성’ 범주가 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여성 이름 혹은 부정 속성’ 범주가 제시된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이미 학습한 40개의 단어가 무선적으로 제시되며 각 단어에 대한 범주를 판단하여 반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별 범주에 성별 이름과 속성 선호도를 연합적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다음의 4단계는 2단계와 모든 절차가 일치하지만 단지 속성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 단계는 왼쪽 상단에 ‘부정 속성’ 범주가 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긍정 속성’ 범주가 제시된다. 이 단계는 2단계의 성별 범주와 속성 선호도에 대한 새로운 연합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5단계는 왼쪽 상단에는 ‘남성 이름 혹은 부정 속성’ 범주가 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여성 이름 혹은 긍정 속성’ 범주가 제시된다. 3단계에서 사용된 40개의 검사

단어가 무선적으로 제시된다. 3단계와 5단계는 성별의 성별 이름과 속성 선호도의 범주가 교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두 조건에서 얻어진 반응의 차이가 암묵연합검사의 점수가 된다. 두 단계의 조건 순서는 참가자에 따라 무선적으로 적용되며, 참가자 성에 따라서 두 단계의 반응 차이가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이다. 실험은 컴퓨터에서 실시되었으며 3-4명이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실험 프로그램은 먼저 실험에 대한 지시문이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되며, 그 다음 위에서 기술한 5단계가 실험 조건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Visual Basic 6.0으로 만들어졌으며, IBM 호환 펜티엄 컴퓨터에서 수행되었고, OS는 Window 98을 사용하였다.

결 과

암묵연합검사에서 반응시간이 300ms 이하인 반응과 30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암묵연합검사의 반응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참가자 성에 따른 암묵연합검사 점수는 여자 참가자가 209ms

이었으며 [$F(1,35)=27.07, MS_e=28999.32, p<.001$], 남자 참가자는 91ms이었다 [$F(1,30)= 5.34, MS_e=23824.17, p<.05$]. 두 참가자 모두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암묵연합검사 점수와 일치하는 것이다(예, Greenwald 등, 2002). 그런데 실험 1의 암묵연합검사 점수는 참가자 성에 따라 118ms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65)=4.37, MS_e=26610.79, p<.05$]. 암묵연합검사 점수는 (여성/긍정)+(남성/부정)의 반응시간의 합과 (남성/긍정)+(여성/부정)의 반응시간의 합 간의 차이이다. 여자와 남자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내외 집단에 대한 반응에서 여자의 내집단(1059ms)과 외집단(1268ms)의 반응시간 차이가 209ms이며 남자의 내집단(1042ms)과 외집단(1133ms)의 차이가 91ms이었다. 남녀의 내집단 반응은 유사하지만 외집단 반응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외집단 반응에서 여자(1268ms)에 비해서 남자(1133ms)가 빠름을 알 수 있었다.

실험 1의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내외 집단의 일치성 효과가 암묵연합검사에도 반영된 것이다. 여자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 평가와 남성에 대한 부정 평가가 남성에 대한 긍정 평가와 여성에 대한

표 1. 암묵연합검사에서 관찰된 참가자 성에 따른 조건별 반응시간의 평균 (ms)

참가자 성	공녀/부남	공남/부녀	차이(IAT 효과)
여자	1059 (209)	1268 (238)	209***
남자	1133 (167)	1042 (200)	91*

* 공녀/부남: 긍정여성/부정남성, 공남/부녀: 긍정남성/부정여성, 여기서 여자 참가자는 공녀/부남이 일치 조건 공남/부녀가 불일치조건이며, 남자 참가자는 공남/부녀가 일치조건 공녀/부남이 불일치조건이다. IAT 효과는 불일치조건에서 일치조건에서 일치조건을 뺀 값이다.

()안은 표준편차

* p. <.05, *** p. <.001

부정 평가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던 것이다. 그런데 암묵연합검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참가자 성에 따른 암묵연합검사 효과의 차이가 관찰된 것이었다. 즉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내외 지단의 반응 차이가 적었으며 그 차이는 ‘여성긍정+남성부정’ 조건의 반응시간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조건은 여성의 긍정과 남성의 부정을 합한 반응이기에 그 근원을 알기는 어렵다. 단지 이재호 등(2001; 2003)의 점화 패러다임의 연구에서 관찰된 여성 속성의 우위 효과나 긍정 속성의 우위 효과를 적용하면 남성의 부정 조건보다는 여성의 긍정 조건이 빠른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실험 1의 여자 참여자의 결과는 Greenwald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여성 긍정과 남성 부정이 남성 긍정과 여성 부정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빠르게 관찰된 것이다. 반면에 남자 참여자도 두 조건의 암묵연합검사 점수의 차이가 있었지만 여자에 비해서는 크기가 적게 관찰되었다. 이는 점화과제를 사용한 이재호 등(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긍정 속성에 대한 반응에서만 남녀 참가자 성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암묵연합검사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예, Aidman & Carroll, 2003; Carpenter, 2000; Rudman & Goodwin, 2004). Aidman과 Carroll(2003)은 성별 태도에 대한 남녀 참여자의 암묵연합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실험 1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female/male’과 ‘pleasant/unpleasant’에서 여자는 ‘female/pleasant’와 ‘male/pleasant’의 차이가 있었지만 남자는 그 차이가 없었다. Carpenter(2000) 역시 전체적으로 참여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더 선호적이라는 증거를 암묵연합검사를 통해

서 확인하였다. 특히 그 효과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남성보다 여성 범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남자에 비해서 속성 간 일치성 효과도 크게 관찰되었다.

실험 1을 종합하면, 여자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선호도를 범주적으로 표상하지만 남자는 상대적으로 그 구분이 미약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의 점화 패러다임이나 실험 1의 암묵연합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일치되었다. 성별 범주의 태도적 표상의 성차가 분명한 사실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별 범주는 평가적 속성인 태도와 더불어 고정관념적 속성도 있다. 실험 1의 평가적 태도의 성차가 있다면 성별 범주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인지적인 고정관념에도 성차가 있는지 의문이 된다.

실험 2: 전형성 효과

실험 2는 실험 1에서 실시한 암묵연합검사가 성별 범주의 전형성에도 민감하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형성은 범주의 속성이 그 범주를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대가는’은 남성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속성이며, ‘화장하는’은 여성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속성이다. 이 속성에 대한 반응은 범주의 속성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반영하며 그 범주의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처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예, Greenwald, et al., 2002).

Banaji와 Hardin(1996)은 성별 이름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고 대명사에 대한 성별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점화의 이름에 일치

하는 대명사가 불일치하는 대명사에 비해서 판단시간이 빠름을 관찰하였다. 이는 두 자극의 성별 범주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가자 성이 점화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얻었다. 여자는 점화-목표 조건의 성별 일치성에 따라 반응을 하였지만 남자는 점화 조건에 관계없이 남성 대명사에 대한 반응이 빨랐다는 것이다. 이재호 등(2001)은 성별 범주의 성차가 전형성 변인에도 작용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여자는 남성 범주보다 여성 범주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남자는 두 범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자만 성별 범주의 일치성 효과가 작용한 증거이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여자는 여자 이름이 제시되면 속성의 전형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빠른 반응이지만 남자 이름이 제시되면 남성의 전형적인 속성에 대한 반응이 빨랐다(예, Rothbart, Sriram, & Davis-Stitt, 1996). 두 연구 모두 여자 참가자는 공통적으로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남자 참가자는 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그 방향도 대조적이었다.

사회 인지의 암묵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암묵연합검사는 실험 1에서 보았듯이 주로 속성의 평가적 차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지만(예, Greenwald, et al., 1998), Aidman과 Carroll(2003)은 암묵연합검사를 자아 정체성, 집단 정체성, 범주 선호도에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그들은 내집단 정체성 효과를 측정하기 'male-me' 혹은 'female-me' 연합관계를 살펴보았다. 여자와 남자 모두 내집단이 외집단에 비해서 빠른 반응을 하였지만 그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내집단 정체성에 대한 표상이 강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연구

패러다임은 다르지만 점화과제의 연구 결과와 상당히 일치되는 연구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성별의 선호도가 범주의 태도를 반영한다면 속성의 전형성은 범주의 고정관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이 속성에 대한 암묵 연합과제의 성차가 반영된다면 성별의 인지적 표상에도 성차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험 2는 성별 범주의 전형성 변인에 따른 암묵연합점수의 차이를 관찰하고 그 크기의 성차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50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27명이었으며, 남학생은 23명이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참가자 성(여자, 남자), 성별 범주(여성 이름, 남성 이름), 성별 속성(여성 속성, 남성 속성)이었다. 이중에서 참가자의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으며, 성별 범주와 성별 속성은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2는 2*(2*2) 혼합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실험재료

실험 2의 실험재료는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및 김미라 (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재료에서 선별하였다. 성별 범주의 성별 이름은 실험 1에서 사용한 재료와 일치하였다. 성별 속성은 여성과 남성을 기술하는 단어이며 성별 범주에서 각각 10개씩 선별되었다. 실험

2에 사용된 이름과 성별 속성 단어는 모두 40개 이었다(부록 1 참조).

반응 차이가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이다. 이외의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절차

실험 2의 암묵연합검사의 절차는 실험 1의 절차와 동일하였다. 단지 실험 1의 속성 선호도 대신에 성별 속성 단어를 사용한 차이가 있었다. 1단계에서는 사람 이름의 범주 단계이며, 2단계는 성별 속성에 대한 단계이었다. 실험 1의 속성 선호도 범주 대신에 ‘여성 속성’과 ‘남성 속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3단계는 왼쪽 상단에는 ‘남성 이름 혹은 여성 속성’ 범주가 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여성 이름 혹은 남성 속성’ 범주가 제시된다. 4단계는 2단계의 성별 범주와 속성에 대한 새로운 연합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즉 왼쪽 상단에는 ‘남성 속성’이 제시되었고 오른쪽 상단에는 ‘여성 속성’이 제시되었다. 5단계는 왼쪽 상단에는 ‘남성 이름 혹은 남성 속성’ 범주가 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여성 이름 혹은 여성 속성’ 범주가 제시된다. 3단계와 5단계는 성별의 성별 이름과 성별 속성의 범주가 교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두 조건에서 얻어진 반응의 차이가 암묵연합검사의 점수가 된다. 두 단계의 조건 순서는 참가자에 따라 무선적으로 적용되며, 참가자 성에 따라서 두 단계의

결 과

암묵연합검사 과제에서 반응시간이 300ms 이하인 반응과 30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암묵연합검사의 반응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성별 이름의 반응시간은 참가자 성이나 성별 이름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속성의 일치성에 따른 성차를 관찰하기 위해서 성별 이름과 성별 속성의 범주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간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성에 따른 일치성 효과는 여자 참가자는 일치조건(1122ms)이 불일치조건(1757ms)보다 635ms 빨랐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6)=82.61, MS_e=65999.26, p<.0001$). 남자 참가자는 또한 일치조건(1057ms)이 불일치조건(1703ms)보다 635ms 빨랐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2)=48.84, MS_e=109315.27, p<.0001$). 참가자 성에 따른 암묵연합검사의 점수 차이는 없었다. 여자와 남자 참가자 모두 성별 이름에 일치하는 속성이 일치하지 않았던 속성에 비해서 반응시간

표 2. 암묵연합검사에서 관찰된 참가자 성에 따른 조건별 반응시간의 평균 (ms)

참가자 성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차이(IAT 효과)
여자	1122 (283)	1757 (351)	635***
남자	1057 (272)	1703 (475)	645***

* 일치조건: 남성 이름/남성 속성 혹은 여성 이름/여성 속성, 불일치 조건: 남성 이름/여성 속성 혹은 여성 이름/남성 속성

()안은 표준편차

*** p. <.0001

이 빨랐다. 이는 전통적으로 성별 이름이 성별 속성과 일치하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던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예, Banaji & Hardin, 1996; Fazio, et al., 1986). 성별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범주 표상은 성차가 없음을 시사한다. 인지적 수준에서 성별 범주는 남녀가 동일한 표상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종합논의

이 연구는 성별 범주의 표상과 참가자 성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두 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성별 범주의 속성은 평가적 속성과 전형적 속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태도와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두 속성을 이분화하였다. 두 속성에 대한 표상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개의 실험이 암묵적 표상에 민감한 암묵연합검사를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실험 1에서는 성별 범주의 선호도 변인을 조작하였고, 실험 2에서는 성별 범주의 전형성 변인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실험 1의 암묵연합검사에서는 참가자 성에 따른 암묵연합검사 점수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선호도에 따른 암묵연합검사 점수가 크게 관찰되었다. 실험 2의 암묵연합검사에서는 참가자 성에 일치되는 성별 범주의 전형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여자나 남자는 모두 성별 범주에 적절한 속성에 대한 범주 판단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 지식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의 하나는 사회 정보가 기억에 범주적으로 표상된다는 것이다. 사회 범주는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의 표상은 인지 일반의 범주에 비교되었으며 그것의 설명도 일반 범주 이론의 연속선상에 있었다(Fiske, 1998; Greenwald, et al., 2002). 이재호 등(2001; 2003; 2004)은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성별 범주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여자는 점화-목표 조건의 일치성이 나타났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았으며, Banaji와 Hardin(1996)도 여자는 점화의 일치성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지만 남자는 점화의 성별에 관계없이 목표의 성별이 'she'인 조건에 비해서 'he'의 반응이 빠름을 보였다. 성별 범주는 남녀로 대비된 표상이 아닐 가능성과 참가자 성에 따라 성별 범주의 표상이 각각 다르게 구성할 가능성이 있었다(De Houwer, Hermans, & Spruyt, 2001; Wittenbrink, Judd, & Park, 2001).

성별 범주는 그 자체로는 인지적 표상으로 간주되지만 사회 범주는 자신과 집단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균형 정체성 모형에 따르면 사회 지식은 '자신=집단(범주)=긍정'의 안정적 균형 표상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Greenwald, et al., 1995; Greenwald, et al., 2002). 자신이 긍정적이면 자신이 속한 집단 범주는 긍정적이지만 자신이 속하지 않는 집단은 부정적인 표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지식의 인지적 표상은 첫째, 그 표상이 개체 혹은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둘째, 그 표상의 평가 혹은 해석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애초값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사회 지식의 중심이 되며 자신은 긍정적이라는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표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강조하는 균형 정체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차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이론

에 근거하여 보면 ‘나는 남자이고, 남자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나는 긍정적이다.’ 라는 표상은 가능하지만 ‘나는 남자이고, 남녀는 모두 긍정적이다. 따라서 나는 긍정적이다.’ 라는 표상은 예측할 수 없다. 균형 정체성 모형에 따르면 남자는 인지적으로 불균형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예, 이재호, 2006). 이재호(2001;2003)의 점화패러다임에서 얻어진 연구와 이 연구의 암묵연합과제에서 얻어진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이 남성 집단에 일치하는 내집단과 그렇지 않는 외집단을 구분하여 표상하기 보다는 두 집단의 긍정적이고 여성적인 속성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과 선호적 태도에 근거하여 이분적으로 대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다.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지위가 높으며 어떤 기반이든지 상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집단 편향이 강한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경향은 암묵적인 수준에서만 나타난다고 하였다(예, Carpenter, 2000; Rudman & Goodwin, 2004). 그런데 성별 범주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동적인 내집단 편향이 오히려 미약하다는 것이다. 즉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강화시키는 기제가 미약하다는 것이다(Rudman & Goodwin, 2004). 조혜자와 방희정(2006)은 인종이나 연령의 범주에는 성차가 없었지만 성별 범주에서만 성차가 있음을 관찰하였고, 그 차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면 왜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내집단 편향이 약한 것인가? Carpenter(2000)는 사회 인지의 성차에는 문화적 제약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서구의 문

화에서 보면 ‘여성=좋다’가 보편적이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Rudman 등(2001)의 주장처럼 사회적 집단과 자신을 ‘바람직한 속성’을 공유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는 주장과도 관련이 된다. 바람직한 속성은 평가적인 속성도 되지만 남성이나 여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속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별 범주가 전형성 표상에선 차이가 없었지만 선호도 표상에서 성차가 있었다. 따라서 남자의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적 제약이 범주의 표상에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성별 범주의 남녀 대비적 구분이나 범주-속성의 연합 강도의 성차는 성별 범주 표상 전망(perspective)이나 표상 단위(unit)에서 다를 수 있다. 문화적으로 보면 서양은 자신으로부터 세계를 조망하는 개체 중심적 표상을 구성한다면 동양은 개체 중심이 아닌 집단 혹은 관계 중심적 표상을 구성한다고 알려졌다(예, Kunda, 2000). 이러한 체계를 성별 지식에 적용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개인의 자신에 대한 개념이나 자존감이 집단의 성별 정체성에 일치하는 표상을 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외 집단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남녀를 개체로 표상하기보다는 집단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표상하기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동질성이 내외 집단에 대한 구분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주의 인지적 수준에서는 범주 표상의 성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남녀 모두 집단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인지적 표상은 동등하다. 단지 상대 성별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서 남녀의 비대칭적인 양상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남자의 대표적인 속성인 강함 혹은 강인함이나 여성의 대표적인 속성인 따뜻

함은 모두 양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이지만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속성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남녀가 각각 자신의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이거나 평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속성들인 것이다(예, Rudman, et al., 2001). 남자는 이들 속성이 인지적 수준에서는 분명하게 표상되지만 정서적 수준에서는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속성을 표상하며 그 표상이 집단의 표상에 일치하는 균형적 표상을 형성하려는 자동적이며 암묵적 기제를 지니고 있다(예, Greenwald, et al., 2002). 하지만 그 균형적 표상은 항상 남녀에 대칭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 범주의 표상 수준은 남녀에 따라 차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여자는 성별의 범주 지식이 자아를 중심으로 정서적이거나 인지적으로 응집적 표상을 형성하지만 남자는 자아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 그 응집성을 형성한다고 보겠다(예, 이재호, 2006). 따라서 성별 범주 지식과 그 표상에 대한 사회 지식의 구성 기제가 성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참가자 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면 두 성의 범주 표상은 대비적으로 보이지만 두 성을 통합하여 인간 혹은 사람의 상위 범주에서 보면 남녀의 대비적 표상은 서로 조화적 표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겠다. 사회 범주는 개인, 집단, 그리고 속성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이재호 (2006).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 과 자동적 점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 41-61.
-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 이재호, 방희정 (2003).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점화효과. 인지과학, 14, 37-48.
- 이재호, 방희정, 최상진 (2004). 한국인의 성별 지식의 암묵적 표상: 남녀 범주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83-102.
- 이재호, 이정모 (2000). 개념 지식의 유형에 따른 표상 차이: 범주와 각본의 위계성과 전형성 비교. 인지과학, 11, 73-81.
- 이재호, 오경기, 김미라, 조공호 (2000). 성별 선호도의 긍정-부정성이 자동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24-225.
- 이재호, 조공호, 오경기, 김미라 (2001). 사회적 범주의 암묵적 표상 구조: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적 점화효과. 인지과학, 12, 43-54.
-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단서, 범주전 형성 및 성별 선호도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49-67.
- 조혜자, 방희정 (2006). 암묵적인 자기 범주화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 245-265.
- Aidman, V. A., & Carroll, S. M. (2003). Implicit individual differences: Relationships between implicit self-esteem, gender identity, gender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19-37.

- Bargh, J. A., Chaiken, S., Govender, R., &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93-912.
- Bargh, J. A., & Chartrand, T. L. (1999). The unbearable automaticity of being. *American Psychologist*, 54, 462-479.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Carpenter, S. J. (2000). *Implicit gender attitudes*.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CT.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Deaux, K., & Lewis, L.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kehammar, B., Akrami, N., & Araya, T. (2003). Gender differences in implicit prejudi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509-1523.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357-411). NY: McGrawHill.
- Fiske, S., & Taylor, S.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Y: McGraw-Hill.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n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Klauer, K. C., Rosn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Lorenzi-Cioldi, F., Eagly, A. H., & Stewart, T. L. (1995). Homogeneity of gender groups in

-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93-217.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0). Social cognition: Thinking categorically about oth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93-120.
- McGarty, C. (1999). *Categorization in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Medin, D. L., Lynch, E. B., & Solomon, K. O. (2000). Are there kinds of concep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121-147.
- Murphy, G. L. (2002). *The big book of concepts*. Cambridge, MA: MIT Press.
- Murphy, G. L., & Lassaline, M. E. (1997). Hierarchical structure in concepts and the basic level of categorization. In K. Lamberts & D. Shanks (Eds.), *Knowledge, concepts, and categories* (pp. 93-132).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Rothbart, M., Sriram, N., & Davis-Stitt, C. (1996). The retrieval of typical and atypical category memb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29.
- Rudman, L. A., & Goowin, S. A. (2004). Gender differences in automatic in-group bias: Why do woman like woman more than man like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94-509.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Smith, E. E., & Medin, D. L. (1981). *Categories and concept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Vonk, R. (2002). Effects of stereotypes on attitude inference: Out-groups are black and white, in-groups are shaded.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157-167.
- Wittenbrink, W., Judd, C., & Park, B. (1997). Evidence for racial prejudice at the implicit level and its relationship with questionnair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62-274.
- 1 차원고접수 : 2006. 09. 05.
심사통과접수 : 2006. 11. 03.
최종원고접수 : 2007. 02. 21.

Sex Differences of Gender Category Representation in Implicit Association Test

Jae-Ho Lee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two experiments using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to explore the sex difference of implicit representation for gender category. In Experiment 1, the manipulated variable was the attribute preference of gender category. The difference of IAT score for the attribute preference was obtained between female participants and male participants. The IAT score of female participants was larger than for male participants. In Experiment 2, the manipulated variable was the attribute typicality of gender category. The difference of IAT score for attribute typicality revealed no sex difference.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dynamic representation of gender category in implicit level.

Key words : social cognition, gender category, sex difference, IAT

부록 1. 성별 범주와 속성에 따른 암묵연합검사의 실험재료

성별 범주		실험 1: 속성 선호도		실험 2: 속성 전형성	
여자 이름	남자 이름	긍정 단어	부정 단어	남성 단어	여성 단어
미라	성수	책임감	허풍떠는	군대가는	꾸미는
민정	동수	속이넓은	잘난척	바지입는	눈물있는
복희	동훈	능동적	이기적인	늑대같은	아름다운
선화	명석	여유로운	무신경한	듬직한	질투하는
수연	영석	적극적	늑대같은	돈을버는	사랑스런
순자	일호	사랑스런	신경질적	무신경한	지조있는
지영	태환	아름다운	잔인한	여유로운	신경질적
은미	성일	성실한	이중적	똑똑한	성실한
은정	문수	자상한	허영심있는	잘난척	이중적
선희	준호	발랄한	수다스런	이기적	잔인한